NH투자증권

한국 3분기 GDP : 수출이 하드 캐리

Economy | 2021. 10. 26

- 한국 3분기 GDP 성장률(+4.0%y-y)은 예상치(+4.3%) 소폭 하회
- 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만 플러스 기록
- 민간소비 개선세는 4분기 이후 가시화될 전망

정여경 (Economist/ 한국경제)
02) 2229-6757, jyk120@nhqv.com

일평균 수출액의 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아

한국 3분기 GDP는 전년대비 4.0%, 전기대비 0.3% 성장하여 예상치(+4.3%y-y, +0.6%q-q)를 소폭 하회했다. 지출 항목별로는 수출(+1.5%q-q)이 증가 전환에 성공한 반면, 민간소비(-0.3%)와 설비투자(-2.3%)는 감소 전환, 건설투자(-3.0%)는 감소세를 지속했다.

한국 3분기 GDP를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다. 현재 일평균 수출액의 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. 전체 수출액 증가율이 2분기 42%에서 3분기 27%로 둔화되었으나, 오히려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30% 안팎을 유지하며 서서히 둔화되는 중이다. 수입 증가율 하락 신호가 나오지 않은 것도 긍정적이다. 국내 기업들이 대외 수요에 대응하여 기계를 구매하는 설비투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.

4분기, 민간소비에 걸어보는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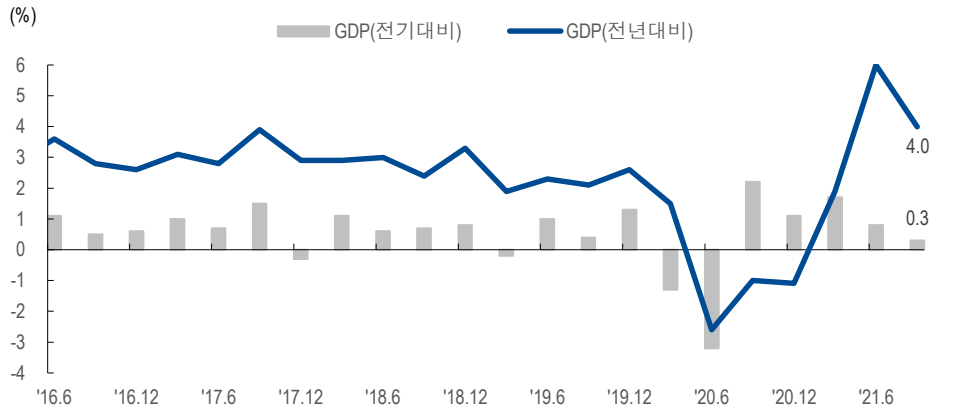
계절조정된 한국 전체 수출액의 고점은 4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병목 현상의 타격이 큰 자동차 섹터의 회복이 4Q21~1Q22로 이연될 것이다. 따라서 한국 수출의 향방은 급락이 아니라 점진적 둔화, 즉 편안한 Peak out으로 예상한다.

한편, 한국의 '위드(with) 코로나'가 11월 시작된다.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나 행사/모임 제한이 서서히 완화될 전망이다. 3분기에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간 덕분이다.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타 국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간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. 하지만 재택근무와 재택 치료가 병행되며 한국의 리오프닝은 지속될 전망이다.

현재 한국 소비자심리지수는 2분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. 4분기 중 리오프닝이 지속되면 의류, 화장품, 스포츠/여가 등의 비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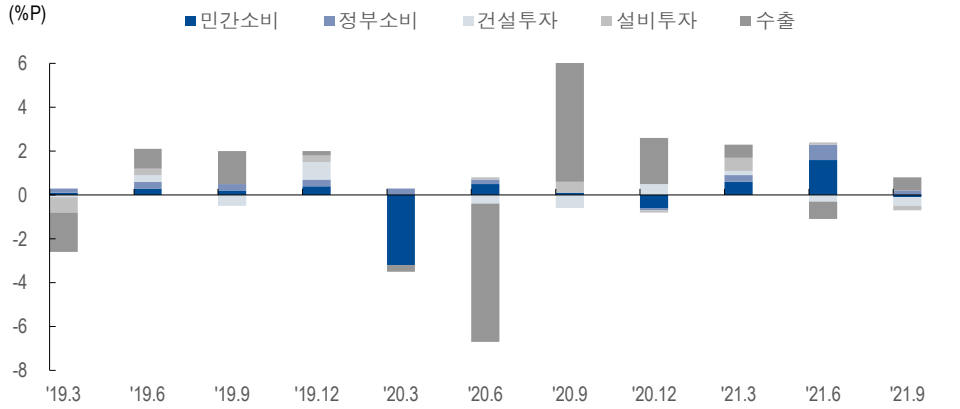
민간소비지원금의 효과가 3분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민간소비 반등은 4분기로 이연될 전망이다. 한국의 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8%, GDP 성장률은 3.5%를 전망한다.

그림 1. 한국 2021 년 3 분기 GDP 전년대비 4.0%, 전기대비 0.3% 성장



자료: 한국은행, CEIC,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 2. 지출 항목별 기여도: 수출이 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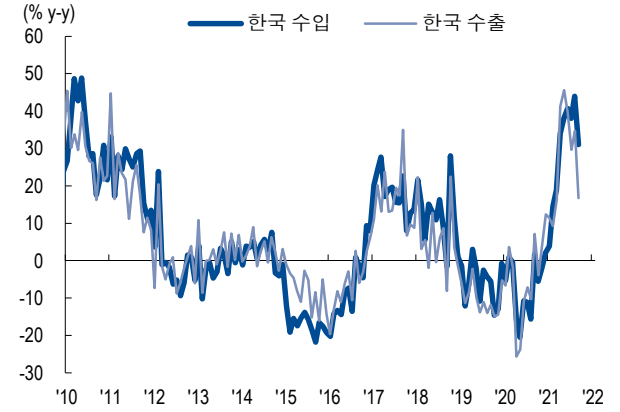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CEIC,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3. 일평균 수출액의 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음

자료: 한국은행,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4.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속



자료: 통계청, CEIC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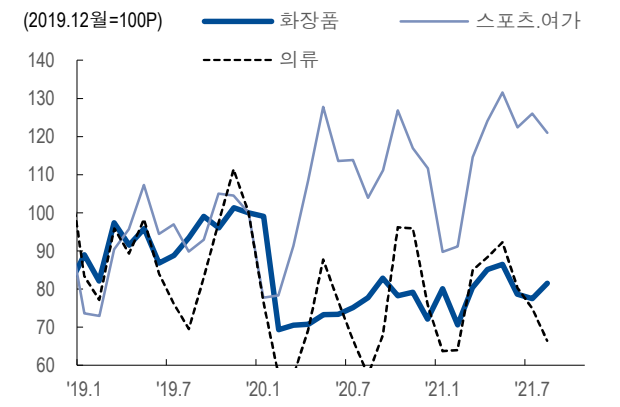
그림5. 병목 피해 부품 수출 회복은 4분기로 이연될 전망

자료: 통계청, CEIC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6. 한국 소비자심리지수, 2분기 수준 회복 못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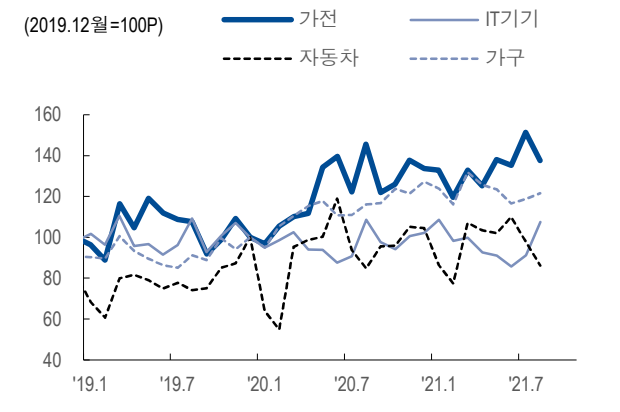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CEIC,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7. 준내구재 소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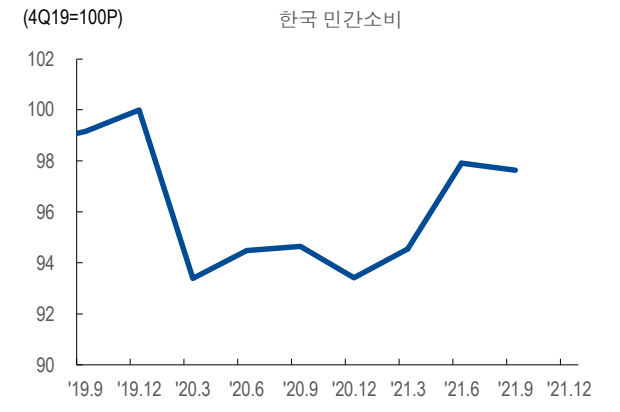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CEIC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8. 내구재 소비



자료: 통계청, CEIC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9. 3분기 민간소비,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진



자료: 통계청, CEIC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10. 아쉬운 건설투자

자료: 통계청, CEIC,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11. 한국 경기동행지수

자료: 통계청,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12. 건설기성액

자료: 통계청, CEIC,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13. 소매판매액

자료: 통계장, CEIC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14. 비농림어업 취업자수

자료: 통계장, CEIC,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 사항

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